

지역 소식통

김제시농기센터,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24일 소장 주재로 5개 부서 과장, 26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 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목표액 달성을 위해 각 부서별 추진상황에 대해 직접 점검했으며, 신속 집행 1,151억원 대비 60%(인) 690억원 중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고 방안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 집행 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관급자재 구매 시 선 고지제도 활용 등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적극 활용 차질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하면, 7월부터 출산가정 축하 탄생석 지급

지역사회의 저출산 극복과 지역소멸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김제시 청하면에서는 출산장려 특수시책인 출산가정 축하 탄생석 지급을 7월부터 시행한다.

청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출산 가정집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출생일을 기념할 수 있는 탄생석 목걸이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김제시에서는 출산시책으로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용품 지원,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우리아이 생애 첫 통장개설 출생축하금 지원 등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는 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오태석 주민자치위원장은 "신생아 출생률이 저조한 때 아이의 출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허정규 청하면장은 "앞으로도 시의 인구 증대에 기여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우량농가 키워냈다

## 군 시설 지원 받은 비봉면 '흙없는 상추' 도매시장 최고가

완주군의 지원 속에 김소농 농가가 크게 성장했다.

완주군은 올해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으로 선정돼 시설을 지원 받은 비봉면의 흙없는 상추(대표 국성근)가 도매시장서 최고가를 받는 등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상추의 기존 수확법은 양액 재배 베드에서 수확한 상추를 바다에 놓여있는 상자에 담아 하우스 밖으로 옮겨야만 했다.

허리를 피고, 굽히고를 반복하다보니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작업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졌다. 건강에 무리가 가는 것도 당연했다.

이에 국성근 대표는 시설상추 연동 하우스 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세척, 수확, 운반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개발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한 완주군은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을 통해 스마트 운반구 등의 설치를 지원했다.

군의 지원 속에 시설상추 4동(3000㎡) 내에는 살수노즐이 탑재된 스마트 운반구 및 배수 직관이 설치됐다.

이로써 세척, 수확, 운반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수확시간이 단축되고 품질과 생산력도 높아졌다.

실제로 최근 도매시장에 납품된 국성근 농가의 상추는 최고가를 받는 등 크게 주목받고 있다.

국 대표는 "완주군에서 시설 지원과 함께 많은 아이디어를 줘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 농장이 확장되어 갔으면 하고, 많은 농업인과 함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술도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의 현실을 보완하고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이수한 김소농가가 비용절감, 품질개선, 고객 확보, 가치향상, 역량강화의 5개 사업영역에 맞게 기존의 사업장 및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천만원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업은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이수한 김소농가가 비용절감, 품질개선, 고객 확보, 가치향상, 역량강화의 5개 사업영역에 맞게 기존의 사업장 및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천만원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24일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 김제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김제시는 24일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계획한 주요업무에 대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지난 2년간의 시장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선7기 후반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제시는 민선7기 출범이후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시장 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먼저 국가예산 2019년 7,031억원, 2020년 8,052억원 2년 연속 역대 최대 확보, 3,026억원 규모 125개 공모사업 대거 선정, 취임 당시 59억원 채무 전액 상환 등 신성장동력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과제인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실현과 오는 6월 30일 조기 개통되는 김제 육교 재가설 공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어 단연 돋보이는 성과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일자리 중심 시장 운영으로 민선 7기 목표(3,000개) 대비 128% 초과한 일자리 3,850개를 창출하고 (주)호룡 등 25개 기업 2,042억원 투자유치를 이끌어 민선7기 2년만에 지정생산업단지 분양률 90%를 달성했다.

민선7기 후반기에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성, 김제시 경쟁우위 사업 특장차 클러스터 조성, 더 좋은 일자리 3,000개 창출을 목표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장,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박차'

박준배 김제시장이 민선7기 반환점을 앞두고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예산확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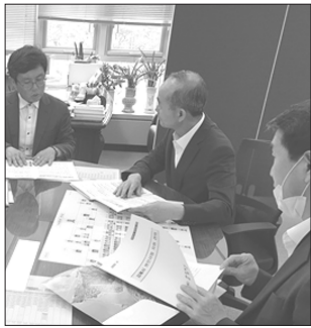
이달 초 세종정부 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했던 박시장은 지난 23일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을 다시 찾아 내년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은 2021년도 1차 예산심의와 예산안의 개략적 모습이 완성되는 7월초 2차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안도길 예산실장 등 예산 관련 핵심인사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 최대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2021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용지현업조사 매입, 백구 제2특장차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발전 견인 사업들이다.

박준배 시장은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주요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북도 및 이원택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마지막까지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 최대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2021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김제시보건소, 만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 시 자궁경부암 등 관련 암의 원인이 된다.

특히 고위험 유전형인 HPV(16,18형) 감염은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로 지목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무료 지원대상은 2007년·2008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접종대상이며 2005년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2006년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2차 접종 비용이 지원된다.

단 사업 기간 내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1차 접종 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2차 접종 비용이 지원된다.

만 12세는 6개월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 예방에 필요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하며, 예방에 필요한 백신 접종 횟수도 3회로 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 감염병 확산 방지 다중이용업소 방역 강화

완주군이 음식점 이용자를 통한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사례가 발생하며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와 식문화 개선 유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완주군은 24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철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방역대책반 추진 현황과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 방안, 하계휴가 분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철우 부군수는 이날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한 사람이 최근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방역조치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에어컨 등 냉방 기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하며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이런 사용지침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다중 이용시설의 에어컨 사용지침은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환기와 바람세기에 주의하며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고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돼 있다.

정 부군수는 이어 "식문화예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각자 덜어먹는 도구를 제공하고 청결 관리는 안심 식당 사례를 파악해 도입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또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여름철 성수기를 앞둔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코로나 청정지역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나아가, 여름 휴가철에 지역을 방문할 관광객과 피서객 등을 위한 방역대책도 사전에 입체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